프론티어 정신으로 물류근대화에 진력

'다음세대에 풍부한 물류자료 물려주겠다'

국내 물류업계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인력 부족, 정보 및 자료부족, 경영인의 물류에 대한 인식부족 등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러나 여기 소개하는 물류자료정보센타 한상원 소장같이 물류를 사랑하고 물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사람이 늘어 난다면 국내 물류발전은 전도가 밝다.

물류관리사이기도 한 그는 물류를 전문으로 공부한 석사도, 박사도 아니고 그저 물류에 매력을 느껴 공부를 시작하여 현재는 그것을 발전시키고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한 사람이다.

지난 90년부터 한국능률협회, 표준협회, 한국물류관리협의회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많은 물류관리사를 배출해 냈으나 개인사무소를 낸 사람은 그 뿐이다.

그는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에게 물류관리 교육을 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강의를 신청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의 경우처럼 물류관리사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그에게는 있다.

한상원 소장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한 경영진단사 교육과정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물류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 분야에 종사해야 겠다고 다짐한 후 물류분야에 입문하였으며, 그당시 그는 포장기계 생산업체에서 영업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국내 중소기업의 물류실정은 매우 취약한 형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지만 경영주들의 인식부족도 심각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물류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난 3월 물류마인드 강좌를 실시했으며 업계의 반응이 좋아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한 소장은 매우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 그는 92년 10월에 기업체의 창고과나 운송부 등 물류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물류관리사를 중심으로 물류동호회를 결성하여 현재 그 회원이 100명에 이르고 있다.

물류동호회는 물류인들끼리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낙후된 한국물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창한 포부를 가지고 만들어 졌으며 지난해 12월 '물류인의 밤' 행사와 지난 2월 신년 교례회 행사때에는 물류관련 행정부의 담당자까지 참석하여 정책 설명회를 갖는 등 알찬 모임의 기회도 가졌다. 앞으로 1년에 2번씩 모임을 가져 물류인들 간의 친목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류관련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는 물류연구 논문 및 사례집과 물류전문 서적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미련없이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자료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가치있는 정보는 마땅히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류현장을 담은 영상자료도 모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것이며 계속적인 자료개발로 정보와 자료에 굶주렸던 국내 물류업계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물류자료정보센타는 각종 물류관련 자료 및 정보를 이용회원사 들에게 제

▲ 한상원 소장은 국내 물류업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류담당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국내에는 물류자료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지있는 정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좋은자료는 마땅히 업계가 공유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그는 앞으로 물류관련 자료들을 계속 찾아내어 정보와 자료에 굶주렸던 국내 업계에 도움을 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하고 있다. 한 소장은 자료에 남다른 애착이 있다.자신도 물류에 대한 공부를 하며 자료가 없다시피하게 부족하여 어려움을 느꼈던 만큼 다음세대의 물류담당자들에게는 풍부한 자료를 물려 주고 싶다는게 그의 또다른 포부다.

이제는 60, 70년대와 같이 기업의 이윤을 영업에서만 기대할 수 없으며 물류관리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소비자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고 그로인해 제품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업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 소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그 재화가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즉 상품을 얼만큼 적기적소에 공급하느냐가 자사의 이익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수출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물류산업의 발전없이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이 불가능한 이유로 업계의 분발이 요구됩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업 경영자의 물류마인드가 필요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기업이 전문인력을 수용하는 만큼 그 숫자도 늘어나므로 경영주들이 물류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하며 대학과정에서의 물류관련 커리큘럼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걸었던 물류사무소를 물류연구소로 명칭을 바꾼 것은 명칭을 바꾸는데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폭넓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입니다." 물류관련 용기회사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 그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용기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꿈이라며 말을 맺는다.

한 소장으로 하여금 물류의 어떤 부분이 그토록 매력을 느끼게 했을까?

기자의 의문은 인터뷰 도중 그의 모습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프론티어 정신이 강한 그는 물류업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발빠른 움직임을 언제까지라도 계속할 것이다.

이선하 기자